

## 일본 노인주거시설의 공간구성에 관한 사례연구\*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홍 이 경\* (경희대학교 주거환경전공 강사)

오 해 경 (경희대학교 주거환경전공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일찍부터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외국의 사례 중 일본 오사카 지역의 노인주거시설을 대상으로 공간구성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의 방법은 일본 노인주거시설을 현지답사하는 실증적인 사례조사방법으로, 현지답사는 일본 오사카 지역의 노인주거시설 6개를 대상으로 2004년 10월17일부터 10월21일에 걸쳐 시행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주거시설은 유료노인홈, 실버하우징, 시니어하우스, 그룹홈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과 반의존 노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들 시설들의 소유형태는 모두 임대방식이었다.

둘째, 전체 공간구성은 一자형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중정을 가지는 형태인 L자형과 ㄱ자형의 구성이 있었다.

셋째, 공용공간의 종류는 기초생활을 위한 공간,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 생활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는데, 유료노인홈, 그룹홈, 시니어하우스의 경우 여러 가지 공용공간이 있었다. 이에 비해 실버하우징은 거주자를 위한 특별한 공용공간이 없어 유사유형인 시니어하우스와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공용공간 구성의 유형은 공용공간이 입구나 1층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유형인 집중형과, 거주자들의 개별공간에 공용공간이 분산되어 배치되는 유형인 분산형으로 분류되었다. 조사대상 대부분 집중형의 형태였으나 그룹홈의 경우는 분산형으로 배치되었다.

넷째, 개별공간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 종류는 원룸형, 1침실형, 2침실형이 조사되었고, 몇 사례에서는 한 종류안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평면이 제공되고 있어 거주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었다. 개별공간의 면적을 보면, 원룸형 10~37.55m<sup>2</sup>, 1침실형 44.98~55.9m<sup>2</sup>, 2침실형 48.4~123.30m<sup>2</sup>이었다. 개별공간의 가구제공방식은 붙박이 수납가구를 제외한 이동식 가구들을 모두 거주자가 직접 가져오는 방식이었고, 그룹홈의 경우 전동식 침대가 제공되고 있었다.

\* 이 논문은 2005년도 두뇌한국 BK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